

익산 원대병원 '해바라기센터' 조성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익산시, 여가부 공모사업 선정... 7억700만원 투입 위기지원형·아동형 통합형 10월 개소

전북 최초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오는 10월 익산시에 조성된다.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해바라기센터 사업은 익산시의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경찰청이 협업체로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는 그동안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지원하던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해바라기센터의 통합형으로 기존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에 피해자들의 심리평가 및 치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7억700만원(국·도비 각 50%)의 예산이 투입돼 병원 내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실, 안정실, 진술녹화실, 수사관실이 마련되고, 병원 외부에는 센터 전용 건물을 신축해 상담실, 심리치료실, 심리평가실 등이 설치되며 경찰관,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오는 10월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과 같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지원해 공공보건으로 체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치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시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

제일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익산시에 5000만원 기탁

전북의 대표적 한도 주택건설업체인 (주)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이 4월 5일 창립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익산시 저소득층 지원에 3,000만원,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날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정현율 시장을 비롯한 (주)제일건설 윤여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윤여웅 대표이사는 "제일건설이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익산 주민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

으로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제일건설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익산시의 어려운 대상자와 익산 푸른 익산 가꾸기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한 금액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 지원하고 익산 가꾸기 사업에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8일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사)새만금 메세나협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제26회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월명실내체육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전국에서 모집하여 예선의 경쟁을 통과한 32명의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아름다움을 뽐내며 군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향토미인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여 총 9명의 수상자를 가린다.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제1부 개막식, 제2부 본선심사 및 축하공연, 결선심사, 입상자 발표,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군산시발전협의회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의회 위원과 희망등대정책토론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7기 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2017 상반기 정기총회로 1부에서는 국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보국 박사의 초청강연과 토론회, 그리고 2017년 운영계획 보고 및 정책발굴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회 위원들의 열띤 토의로 2부를 진행했다.

강연에서 김보국 박사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의 우수자원을 활용한 사업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역에 대한 고찰과 연구로 관련부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7기 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로 국책사업에 반영하여 민선 6기의 시정성과와 지역발전 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4~6일 임시회 개최... '불용약품 관리 조례안' 등 14건 부의안건 처리 예정

군산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제 201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현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배형원 의원 발의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 발의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 행정부장관,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자치제 현실은 지역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 이르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군산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201회 임시회를 열고 시급한 지역현안 등을 처리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오동·금광지역은 송창동 지역과 함께 현지개발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지역으로 도시계획 사각지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산시 도심고지대의 근본적인 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장·단기 도시계획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도 예산심의회에서 생산안전강화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군산 학교 16곳에 '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학교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데도 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적극 도입을 주문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익산시-원광대학교, 인구늘리기 방안 간담회 개최

지난 4일 익산시 문화산업국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 이강래)과 간담회를 열고 인구늘리기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강래 산학협력단장, 이호섭 대학원장, 송문규 링크사업단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전중순

투자유치과장, 대학 및 시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래 산학협력단장은 "학교차원에서 인구늘리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해당 학생

들이 익산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익산사랑카드 발급, 주민세 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숙사, 원룸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전입 실거주 대학(원)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시내버스 노선·시간표 변경 10일부터

군산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표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노선변경 주요 내용은 아파트 신축 및 시내버스 신규 수요 발생 지역에 대한 노선 조정, 관광객을 위한 타 교통수단(군산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노선 시내버스가 현행 170회에서 183회로 13회 증회 운행하는 등 접근성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시장(95%), 군산대(71%), 원도심(49%)의 주요 운행구간 비율을 늘렸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승강장 확장·개선과 더불어 노선안내도를 순차적으로 제작·설치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 홈페이지에 변경노선을 안내하고 버스승강장 및 시내버스 차량 내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시간표 2인부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군산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14회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24개 기관과 국내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71종의 소득, 재산 정보를 받아 이를 참고하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가구는 소명과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관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